

“광주 대표할 맛집을 찾습니다”

市, 세대별 취향 고려 테마별 50여곳 선정 주먹밥 메뉴 개발·판매 의사 등도 고려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소를 발굴하기 위해 ‘광주맛집’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제8기 광주맛집은 세대별 취향을 고려해 △광주대표음식맛집 △골목맛집 △나들이맛집 △분위 기맛집 △건강맛집 등의 테마로

나누고 음식 맛을 평가해 50여 곳을 선정한다. 올해 광주대표음식으로 선정된 ‘광주주먹밥’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주먹밥에 대한 메뉴 개발 및 판매의사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광주맛집으로 선정되면 지정

패 부착과 함께 입식테이블 교체비와 조리장 등 시설 개선 시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19년 10월 7일) 현재 광주지역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로 한정식, 한식, 일식, 양식 등 분야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 한국의식업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관광협회, 각 지구 및 시민 등의 추천도 받는다. 접수는 25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

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는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광주맛집을 선정하고 있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맛집이 광주의 맛과 멋을 알리고 나아가 대표관광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음식점 영업자를 포함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국책연구단과 치매예측검사 업무 협약

광주 동구가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과 함께 지난 1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치매예측검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체계적 치매예측과 예방관리를 위한 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산별검사 협력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대상자 연계 및 검사지원 △치매 조기진단·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및 시범서비스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동구는 앞으로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과 협력해 치매 조기예측과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기반 의료시범서비스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만장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법,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감을 좁히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 점검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관내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남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선 이유는 사업 참가자의 주된 연령이 50~70대로 고령자 비율이 높음에, 실의 작업이 많아 각종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 상태를 비롯해 작업장 주변 유해 및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북구, 민·관 협력 통한 저출산 극복 나선다

광주 북구가 민·관 협력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북구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까사디루체 워딩컨벤션, 리치투어, 브라이덜켈리, 메르베베스튜디오, 웨딩메리디언, 메이크업전문가, 달콤패밀리포토, 레이나스튜디오 등 9개 기관·업체와 ‘저출산 극복 민·관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이웃의 결혼식과 출생축하 사진촬영을 지원한다. 먼저 북구는 오는 10월 31일 까사디루체 워딩컨벤션에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주민 3쌍을 대상으로 예식장, 드레스, 사진촬영, 신혼여행 등을 지원하는 ‘우리두리 작은 결혼식’을 추진해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이달부터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엄마 만삭·신생아·가족사진 촬영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엄마랑 아기가랑 출생축하 사진촬영’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광산구 첨단2동 치매안심마을 회의 개최

2일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가 월계경로당에서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 치매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무양서원 치매 정보관 설치 등을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회의를 열고,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주민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치매환자·가족을 지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곳. 지난달 월계경로당 주변 마을은 광산구 치매안심마을 공모에 선정됐다. **임행택 기자**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 선언 채택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들이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광주·대전·부산·대구·인천·울산 협의회장이 참석해 지방 재정제도 개선 등 자치구에 불리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민세 세제 개편(대전) △주민세 균등분 구세 전환(광주) △사회복지예산 보조를 분담기준 개선(광주) △국가정책 추진 인

건비 국비 지원(광주)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자체 배분(광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부산)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부담분 비율 인하(울산) △정부목적예비비용·산업위기지역 직접 지원(울산)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상향(울산) △보통교부세 자치구직접 교부(대전, 울산, 부산, 인천) 등 10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고,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해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등 광역시 자치구 중심의 개편과 국고보조율 향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신봉우 기자**

민주당 김승남 위원장, 4개군 지단합체육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구)은 지난 5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2019당원교육 및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남지역위원장을 비롯 우원식(전)원내대표, 송갑석광주시당위원장, 김철우보성군수, 이승욱강진군수, 박병종(전)고흥군수, 김성(전)장흥군수와 4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 군의원 31명을 포함 당직자 및 당원 3,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승남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집권당이 압승하여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로 이어나가도록 혼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신봉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